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75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2월 22일 (음력 1월 18일) 금요일

## 광주 문화예술, 브랜드 관광상품으로 만든다

市, 예향광주 정체성 살린 '예술여행도시 광주' 브랜드 개발

지역 예술가·기획자 함께하는 여행 프로그램 운영하기로

광주시가 광주만의 차별화된 예술관광 브랜드 상품 발굴에 나선다.

광주시는 21일 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관광분야 전문가, 학계, 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관광도시 광주'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시는 예향광주의 정체성을 살린 관광상품을 육성하기 위해 '예술여행도시 광주'라는 브랜드를 개발했다.



광주·전남 대학생 5·18 망언자 처벌 퍼포먼스

광주·전남대 학생 진보연합은 2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는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씨

의 처벌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광주·전남 교명 변경 '주춤'…올해 딱 한곳

광주·전남 일선 학교에 교명(校名) 변경 바람이 눈에 띄게 잦아들고 있다.

21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3월 신학기에 맞춰 교명이 변경되는 곳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 광주 송이교 단 한 곳 뿐이다.

광주 남구에 위치한 송의교는 유형 전환과 재구조화를 통한 특성화고 전환을 계기로 학교 이름을 '송의과학기술고등학교'로 변경했다.

광주에서는 2013년과 2014년 4곳의 학교가 명칭을 바꾼 데 이어 2016년에는 백일초가 성진초로, 동일전자정보고가 동일미래과

학교로, 호남삼육학교가 호남삼육중으로 변경했고, 택지개발에 따라 효천중학교가 신설됐다. 2017년에는 지원초가 지원초로, 월남유치원이 지원유치원으로, 광주경영고가 광주소프트웨어미스터고로, 삼육고가 호남 삼육고로 교명을 바꿔 새롭게 출발했다.

전남은 2013~2014년 2년 새 12개 학교가 교명을 변경하는 등 5~6년전까지만 하더라도 '교명 같아하기' 가 활발했으나, 지난해에는 학다리고가 공립 전환 1년만에 합병 학교리고로 전환하고, 장성실고가 장성하이텍고로 변경한 것이 전부였다.

김정환·조인호 기자

### 전남 가축시장 22일 재개장…휴장 21일만

#### "개장 전후 가축질병 만전 기할 것"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지난 1월 28일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그동안 중단됐던 가축시장을 22일 일제히 재개장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조치로 지난 1일 가축시장 임시 휴장조치를 내린지 21일 만이다.

그동안 재개장을 위해 주변 도로의 상

이번 사업은 2022년까지 관광 브랜드에 적합한 상품 개발·운영과 관광콘텐츠 공급 경로 확대, 도시개발과 연계한 도시공간 전반 예술코드 접목, 주민친화형 상품 운영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술관광 브랜드사업 5대 전략으로 ▲예술 관광 협장 역량 강화 ▲4대 권역 제안(비엔날레관·일상예술, 아시아문화전당관·동시대예술, 임원사작관·근대예술, 무등산관·전통예술)과 권역별 콘텐츠 및 인프라 확대 ▲관광객 방문 규모와 체류 시간 증대 ▲도시공간 전반 예술코드 접목 ▲예술관광 주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광주 예술가와 지역청년 여행기획자를 연결해 관광객들이 반일 또는 하루 정도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청년 기획자의 예술여행 상품은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2019광주세계수영 선수권대회 기간에 광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과 전 세계 209개국 1만500여 명의 선수단을 대상으로 판매·운영한다.

지역 관광업계와 협업으로 국제행사가 관광분야와 결합해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광주시는 지역이 보유한 매력적인 예술코드가 음악·현대문화·영화·공연예술·고미술품·건축물 등 도시 전 분야와 융합해 새로운 관광산업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항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최근 특수목적 관광과 같은 대안관광이 주목받고 있어 새로운 융복합을 통한 지역민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는 광주가 자닌 예술분야 저력을 관광 브랜드화하고 국제규모 행사와 접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Photo 漫評

편향

손학규비른마태당대표는 21일 자유한국당 유력 당원주자인 황교안 후보를 겨냥 제1야당 대표 후보가 당선전부터 민주주의 다양성을 배제하는 극우·극단주의에 경도된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당 지도부의 새로운 후보가 될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개념 당장 정치적 이득에 눈멀어 우리정치 세계를 극단주의·반민주주의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장 유력한 황 후보의 행보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대한민국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책임졌던 분이 극우·극단주의 입맛에 맞는 발언을 연일 계속하고 있다. 이 분이 당을 이용해 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어디로 갈지 짐작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시스



나름 능률의 스마트 고속도로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나면



사람이 우선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